

엔예뉴스 스테이션

가희, 하와이 결혼식 사진 SNS 공개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가희가 결혼식 사진을 공개해 팬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 가희는 26일 하와이에서 3살 연상의 인케이스코리아 양준무 대표와 결혼식을 올린 후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가희는 SNS에 “Just got married, thank you god”(이제 결혼했다. 신에게 감사한다)이라는 글과 함께 신랑의 팔짱을 끼고 선 뒷모습의 사진을 게재했다.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신혼여행을 즐기고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가희는 결혼 후에도 뮤지컬과 방송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5월7일 ‘2016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



고 김광석(사진)의 20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2016 김광석 다시 부르기’ 콘서트가 5월7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다. 공연기획사 라온큐브에 따르면 이번 공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박학기, 동물원, 이적, 자전거탄풍경, 장필순, 김조한, 유도현, 정동하, 알리, 스윗소로우, 송승연, 박시환 등 선후배 가수 12개팀(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 고인을 추억할 예정이다.

‘응답’ 류혜영, 데뷔 첫 팬미팅 성료



연기자 류혜영(사진)이 27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연 첫 번째 팬미팅을 마쳤다. 류혜영은 이날 오후 서울 일지아트홀에서 사전신청을 받은 250명의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류혜영은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보라 역으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고, 당시 팬들이 보내준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EXID 정화, 웹드라마 ‘마스크’ 주연 캐스팅



걸그룹 EXID의 정화(사진)가 웹드라마 ‘마스크’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소속사 바나나컬처에 따르면 정화는 6월 공개되는 ‘마스크’에서 인기 절정의 걸그룹 마세라의 멤버 애니터를 연기한다. 판타지 웹드라마 ‘마스크’는 쓰기만 하면 얼굴부터 몸매까지 아름답게 변화해 해주는 마스크가 소재다.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파티세 유노 역은 연기자 김진우가 맡는다.

태연, 내달 23~24일 데뷔 첫 단독 콘서트



그들 소녀시대의 태연(사진)이 데뷔 9년 만에 처음 단독 콘서트를 연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연이 4월23~24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태연, 버터플라이 키스’를 연다”고 밝혔다. 태연은 2007년 소녀시대로 데뷔한 후 유닛 ‘태티서’와 OST 등에 참여하며 가창력을 자랑해왔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솔로 ‘아이’로 각종 음원차트를 휩쓴 저력으로 첫 번째 콘서트까지 열게 됐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3월 20일~3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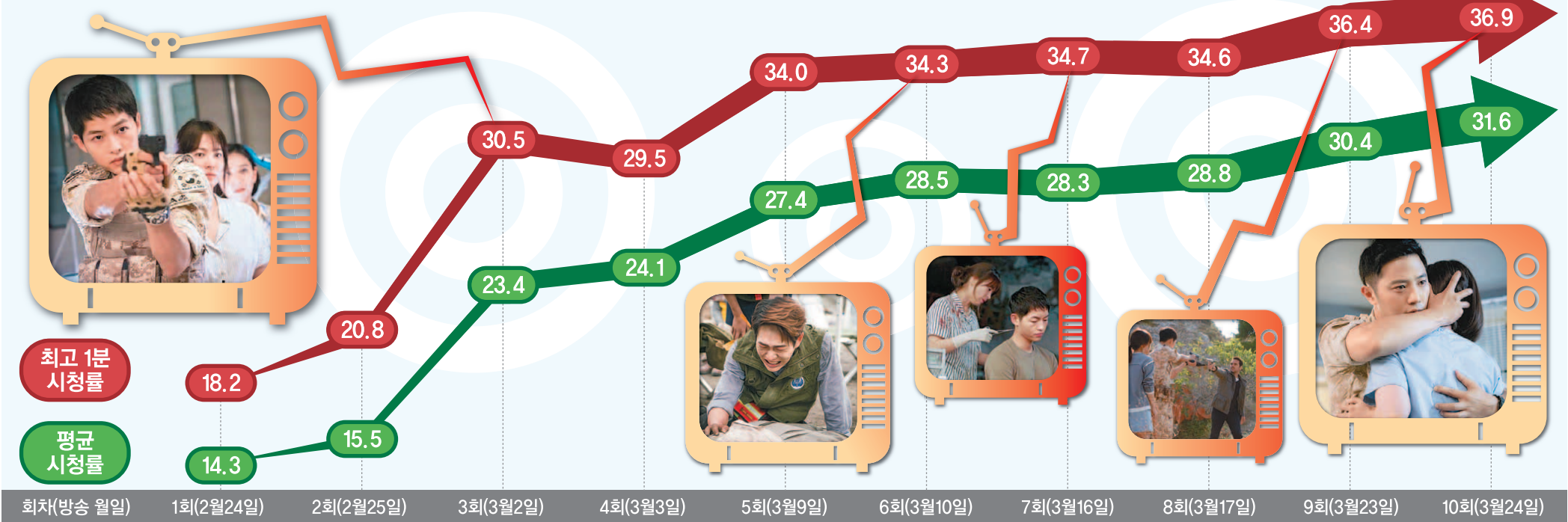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배트맨 대 슈퍼맨	977,348	977,348	03/24
2	주토피아	399,905	3,062,932	02/17
3	런던 해즈 폴른	154,750	693,034	03/10
4	귀향	142,780	3,514,383	02/24
5	넬 기다리며	111,948	614,160	03/10
6	글로리데이	76,616	79,379	03/24
7	부활	53,154	75,625	03/17
8	갓 오브 이집트	44,577	917,595	03/03
9	동주	41,894	1,134,056	02/17
10	오 마이 그래프	31,655	76,005	03/17

편집 | 교창일 기자 ico@donga.com

‘태양의 후예’ 평균시청률과 최고의 1분 시청률 (단위 : %) ※ 자료 : 닐슨코리아



‘태양의 후예’ 멜로보다 위기에 쫓긴다

‘최고의 1분’ 시청률 분석 결과

아랍의장 수술 > ‘와인키스’ 장면
악당들과의 대치·오일 신 등 눈길
구·원커플, 10회 최고의 1분 장식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시청률 30%(전국기준·닐슨코리아)를 넘어서며 파죽지세로 안방극장을 장악하고 있다. 24일 10회까지 회당 최고 1분 시청률의 평균치도 30.9%.

과연 시청자는 1회부터 10회까지 어떤 장면에서 폭 빠져들까. 최고 1분 시청률을 기록한 각 장면을 스포츠동아가 분석했다.

●멜로보다는 위기를 더 즐긴다!

‘태양의 후예’의 많은 여성 시청자는 특정한 유시진(송중기) 대위와 의사 강모연(송혜교)의 로맨스를 보는 재미에 매료돼 있다. 특히 송중기가 높은 싱크로율로 유시진을 표현하면서 시청자를 더욱 열광시키지만, 시청자는 극중 남녀의 탈탈함보다 위기의 순간에 응답했다.

2회에서 유시진과 강모연이 우르크에서 재회한 뒤 이들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최고 1분 시청률은 20.8%에 머물렀다. 3회는 우르크를 순방하다 긴급 이송된 아랍연맹 의장의 수술을 강모연이 할 수 있도록 유시진이 상대 경호원을 막아서는 긴장

감의 효과로 30.5%를 기록했다. 이 장면은 해당 국가 의사만 가능한 수술을 한국인이 집도하며, 의사로서 잃었던 사명감을 되찾는 강모연의 감정까지 더해져 몰입도를 높였다. 4회의 ‘와인키스’는 29.5%로,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첫 단계였지만 시청자는 오히려 크게 설레지 않았다.

6회부터 지진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면서 기획의도 중 하나인 휴먼멜로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34.3%를 기록한, 의사 이지훈(윤우)이 자신의 오진으로 죽음을 맞이한 환자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또 구조 활동을 마치고 유시진이 강모연에게 “한끼 싸워줘서 고맙습니다”며 서로를 위로

하는 장면 역시 34.7%로 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9회에는 유시진과 강모연의 키스 2번이나 나왔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시청자를 이끄는 힘이 더욱 강했다. 유시진이 악당들로부터 강모연을 지켜내려 상대와 총구를 겨누는 장면이 36.4%를 기록했다. 10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윤명주(김지원) 중위를 서대영(진구) 상사가 말없이 끌어안는 장면으로 위기의 안타까움이 36.9%까지 이끌었다.

●송·송커플>구·원커플

회당 최고 1분 시청률을 가장 많이 장식한 이는 단연 ‘송·송(송중기·송혜교) 커플’이다. ‘구·원(진구·김지

원) 커플’보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고 그 횟수가 더욱 잦다. 2·3·4·7회에 ‘송·송커플’의 애틋하거나 달달한 모습이 약 60분의 방송시간 중 1분 동안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송중기는 1회, 송혜교는 5·8회에서 각각 시청자의 많은 시선을 끌었다.

‘구·원 커플’은 10회를 통해 처음으로 최고의 1분을 장식했지만 기회는 아직 많다. 진구와 김지원의 분량이 초반보다 늘어나며, 극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윤명주와 이를 지키려는 서대영의 관계가 더욱 애절하게 그려질 예정이어서 시청자의 시선이 ‘송·송 커플’ 못지않게 ‘구·원 커플’에게도 쏠릴 전망이다.

백슬기 기자 bsm@donga.com

‘태후’ 음원시장 장악…가요계는 ‘한숨’

〈‘태양의 후예’〉

음원 쪼개기 전략으로 차트 점령
OST에도 밀리나…허탈감 땀배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음원시장을 장악하면서 가요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가요계가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에 마주하며 위기감까지 대두되는 모양새다.

27일까지 나온 ‘태양의 후예’ 삽입곡 7곡은 멜론, 지니, 엠넷닷컴 등 국내 대부분의 음악사이트 실시간 차트 10위권에 올라 있다. 장범준이 25일 2집을 발표하면서 순위 다툼이 치열해졌지만, 그 이전까지 차트마다 ‘태양의 후예’ 삽입곡이 1~7위까지 채우는 현상도 쉽게 목격됐다. 실제로 엠넷닷컴의 3월 셋째 주(14~20일) 주간차트 1~6위는 ‘이 사랑’(사진) 등 모두 ‘태양의 후예’ 삽입곡이었다.

이처럼 드라마 OST가 크게 히트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모두

가 10위권에 오르고, 신곡이 잇따라 장기차트 차트에 머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태양의 후예’가 2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삽입곡 음원을 1곡씩 내고 돌풍을 일으키는 ‘음원 쪼개기’ 전략으로 음원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하면서 가요계 관계자들은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MBC ‘무한도전-무도가요제’처럼 프로그램의 인기를 바탕으로 손쉽게 차트를 장악하는 현상은 위기감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음악예능에 밀리고, OST에마저도 치이는 현실이 한숨이 나온다”며 낭패감을 드러낸다. 온갖 고민 끝에 콘셉트를 정하고, 발표 시기를 정하면서 치열한 눈치잡전까지 펼쳐온 음반기획사 입장에서 “태양의 후예” 측은 앞으로 3곡의 삽입곡 음원을 더 발표할 예정이다.

가요계가 더 긴장하는 것은 나머지 삽입곡을 부른 주인공이 엠씨더맥스,



SG워너비, 김준수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들은 평소 음원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온 ‘음원강자’들. 이들이 부른 삽입곡도 1위는 ‘폐물은 당장’이란 시기가 지배적이다. ‘태양의 후예’ 삽입곡 10곡이 모두 공개된 이후에는 음원차트가 드라마 OST로 완전히 ‘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 음반기획사 대표는 “음반의 프 로듀싱 능력 등 기획력보다 인기 프로그램의 화제성에 가요계가 휩쓸리는 형국”이라며 씁쓸해 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태후’ UCC 범람…저작권 침해 우려도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각종 SNS를 비롯해 온라인 상에서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드라마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송중기와 송혜교의 극중 장면을 이용한 이모티콘과 패러디, 캐리커처, 휴대전환 바탕화면 이미지 등이 줄지어 올라 있다. 드라마 속 인상 깊었던 장면과 대사 등을 이용해 팬들이 만든 것으로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팬들 역시 이를 SNS 등을 통해 퍼뜨리며 드라마의 여운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 등이 정도를 넘어서 관련 장면을 활용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인 N.E.W 측에 따르면 배우들의 초상을 포함한 드라마 관련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천안 병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창수 후보는 예비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태양의 후예’ 포스터를 이용한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가 내렸다. 또 각종 패션용품 업체 측은 송중기와 송혜교 등의 초상을 이용해 휴대전화 케이스, 양말, 티셔츠 등을 만들어 상품화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연기자들의 초상, 드라마 콘텐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이 나 단체, 기업 등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팬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드라마 장면을 캡처, 패러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다”면서도 “하지만 팬들도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광고를 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류준열·지수, 스크린 새 얼굴 통했다

‘글로리데이’ 박스오피스 3위

‘새 얼굴’ 류준열과 지수에 관객도
답했다.

이들의 주연작으로 24일 개봉한 ‘글로리데이’(감독 최정열·제작 보리픽처스)가 저예산 영화의 한계에도 관객의 선택을 이끌어내며 첫 주말인 25일부터 27일까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랐다. 400여개 상영관을 유지해 모은 누적 관객은 10만여명. 3월이 전통적인 극장가 비수기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적지 않은 숫자다.

‘글로리데이’는 같은 시기 ‘배트맨 대 슈퍼맨:저스티스의 시작’ 등 블록버스터의 공세에 맞서 스크린 확보 등 난항을 겪었지만 선전하고 있다. 갓 스무살이 된 청년들이 겪는 불운한 상황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20~30대 관객의 선택을 이끌어냈다. 배급사 옛나인필름은 27일 “‘글로리데이’의 성적은 대작에 도전한 충무로 신예들의 당찬 도전이 만든 결과”라며 “젊은 연기자들의 연기와 진심 어린 메시지가 관객의 지지를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인공 류준열, 지수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봉 전부터 이미 영화계 차세대 연기자로 주목받았던 두 사람은 ‘글로리데이’의 잔잔한 흥행으로 향후 활약에 더 큰 기대를 얻고 있다. 특히 류준열은 케이블 채널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스타덤에 오른 배경이 ‘연기력’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영화 ‘소셜포비아’가 있었지만 주연은 ‘글로리데이’가 처음이란 사실에서 한층 성장한 실력을 보여준다. 지수 역시 충무로가 주목하는 신예로서 자신의 매력을 과시했다. 장편영화 데뷔작이란 사실이 무색한 활약이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영화 ‘글로리데이’의 류준열(왼쪽)과 지수가 블록버스터 공세에도 신예의 패기와 연기력으로 잔잔한 흥행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영화 속 한 장면. 사진제공 | 보리픽처스